

美 경제 현황과 주요 기관 2023년 전망에 따른 시사점

- ◆ 블룸버그, 내년 미국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 70% 육박
- ◆ 주요 기관, “짧고 완만한” 수준의 리세션 전망. 일부 ‘연착륙’ 가능성도 제기
- ◆ 미국 내 경제 비관 여론 고조 속에 급격한 소비 위축 리스크 상존
- ◆ 재정·통화 확대 정책 사용이 곤란한 상황 속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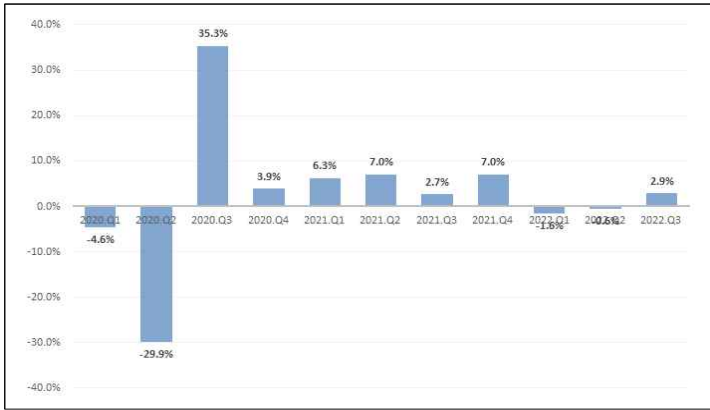
1. 조사 배경

- '23년 미국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 고조에 우려 증폭
 - 경제학자 설문(블룸버그 12월), 내년 미국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 70% 예측
- 불황 돌입 확률이 6월 이후 급격히 상승 중 (6월 30% ⇒ 9월 50% ⇒ 12월 70%)
-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잠재적 소비 위축을 불황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
 -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△고금리, △고물가, △정부 부양책 축소, △수출 부진 ⇒ 기업 고용, 재고, 설비 투자 감소로 악순환 예상
- 동 보고서는 △12월 기준 미국 주요 경제 지표와 △주요 기관의 내년도 경제 예측을 살펴봄으로써, △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다룸.

2. 미국 경제 현황 (2022.12.13. 기준)

- (국내총생산) 하반기에 들어 미국 GDP 성장세 전환
 - 상반기 -1.1%로 역성장을 보였던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3분기 들어 전 분기 대비 2.9% 성장 기록 (전년 대비 1.9% 성장)
 - 3분기 경제 성장 전환의 주된 원인으로 (1) 서비스 소비 증가, (2) 순 수출 증대, (3) 정부투자(국방 및 인프라 등) 확대 등이 꼽힘.

<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(전기 대비) >

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

< 3분기 GDP 성장률 기여(항목별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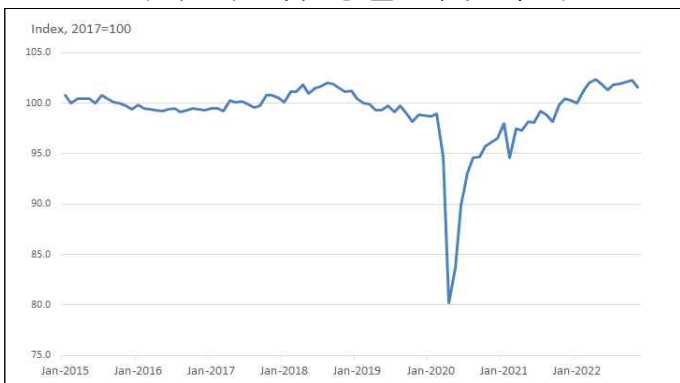
항목	GDP 성장 기여(%)
개인소비지출	1.18%
상품 지출	-0.04%
서비스 지출	1.22%
민간 국내 투자	-1.71%
고정 투자	-0.74%
민간 재고투자	-0.97%
순 수출	2.93%
수출	1.72%
수입	1.21%
정부 지출 투자	0.53%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

□ (제조업) 11월 들어 제조업 생산 감소세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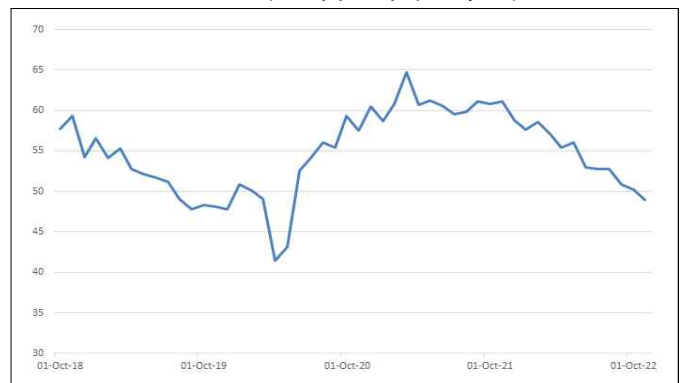
- 11월 미국 제조업 생산 활동은 전월 대비 0.6% 축소 (전년 대비 1.2% ↑)
 - 내구재와 비내구재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각각 0.6% 감소
 - * 전년 대비 내구재 제조업 생산은 2.7% ↑, 비내구재 생산은 0.1% ↑
- ISM 제조업 지수는 11월 중 49를 기록해 전월 50.2에서 1.2 하락
 - 올해 1월 최고 57.6을 기록한 후 연중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임.

< 미국 제조업 생산 지수 추이 >



[자료] 연준(Federal Reserve System)

< ISM 제조업 지수 추이 >



[자료] 공급관리자협회(ISM)

□ (가계) 가계 소득은 완만한 증가세 유지 ⇒ 소비 지출 확대 유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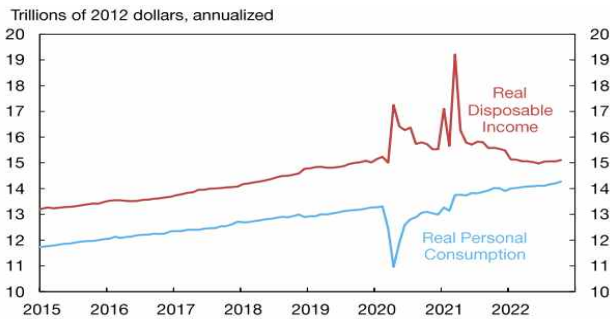
- 10월 실질 가처분소득(real disposable income)이 5%(연율) 상승

- 명목 임금(nominal compensation)이 6% 상승(연율)하여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
 - * 전년 대비 명목 소득(nominal income) 5% ↑ / 실질 가처분소득 3% ↓

- 10월 실질 개인 소비(real personal consumption)는 전월 대비 6%(연율) 증가
 - * 개인 저축률(personal saving rate)은 10월 2.3%로 17년래 최저 수준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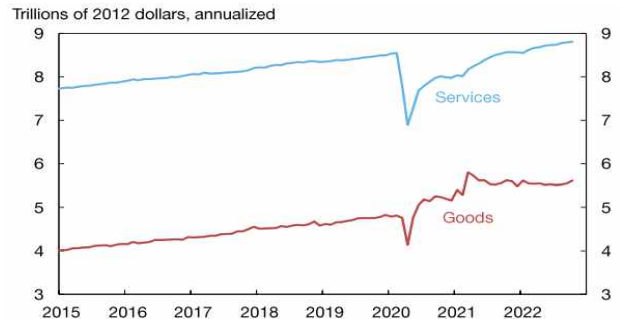
- 10월 실질 상품 지출(real consumer spending on goods) 14%(연율) 증가
 - 실질 서비스 지출은 전월 대비 2% 증가 (전년 대비 3%)

< 가처분 소득 및 소비 >

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, 연준

< 개인 소비 지출 >

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, 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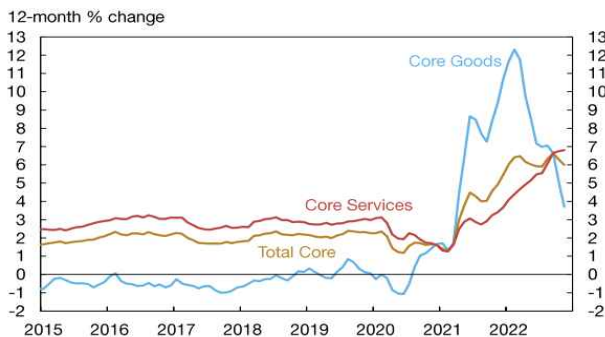
□ (물가) 금리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 발현 중

- 핵심 물가지수(Core CPI)는 11월 6.0%로 전월 6.3%에서 하락
 - * 핵심 상품물가지수 (10월) 6.6% ⇒ (11월) 3.7% / 핵심 서비스물가지수 11월 6.8%로 소폭 상승

-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전체 물가지수 상승 동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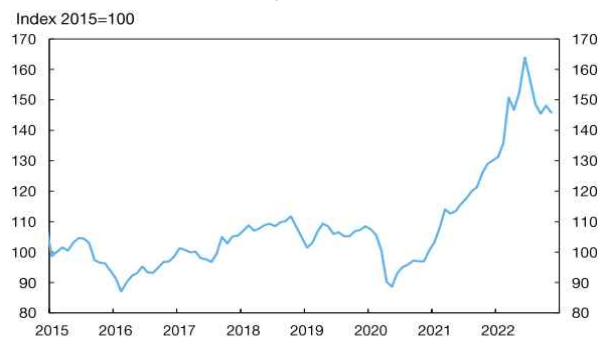
- CPI 항목 중 에너지 부문(11월) 지수가 전년 대비 13% 이상 높은 수준
 - * 전년 대비 10월 휘발유 가격 10% ↑, 천연가스 16% ↑, 전력 14% ↑

< 핵심 물가지수 >

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, 연준

< 에너지 부문 물가지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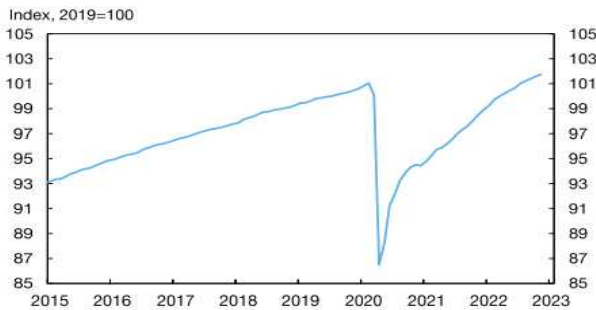
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, 연준

□ (고용) 안정적인 고용 증가세 속에 임금 인상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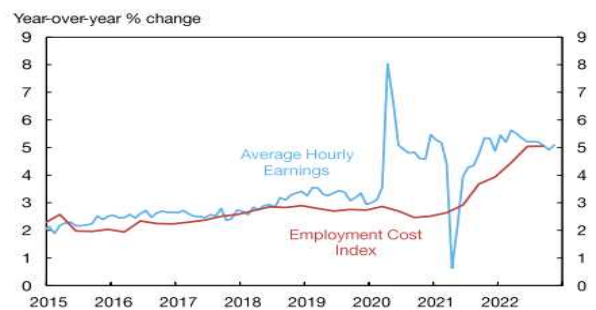
-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263,000개 증가하여, 전국 실업률 3.7% 기록
 - 보건·교육 및 여가·숙박 등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
 - 하지만, 고용 증가는 올해 상반기 이후 둔화 진행 중
- 평균 시급 인상률은 10월 5.7%에서 11월 6.8%로 고조
 - 기업 고용 비용(employment cost)도 지난 6~9월 사이 5.1%(연율) 증가

< 비농업 고용 >

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, 연준

< 평균 시급 및 고용비용 >



[자료] 미국 경제분석국(BEA), 연준

2. 주요 기관의 2023년 경제 전망

□ (연준) 12월 공개시장위원회(FOMC)은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

- '23년 GDP 성장률, 실업률, 인플레이션을 9월 전망치보다 부정적으로 예측
 - 내년 기준금리 5.1% 예상 ⇒ GDP 성장률 0.5%로 9월 전망 1.2%에서 조정
 - * 내년 실업률 4.6%,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 3.1% 등 모든 지표에서 경제 악화 예상

< 연준 FOMC 12월 경제 전망 (중간값) >

지표 (9월 전망치)	2022	2023	2024	2025	장기추세
실질 GDP	0.5%(0.2%)	0.5%(1.2%)	1.6%(1.7%)	1.8%(1.8%)	1.8%(1.8%)
실업률	3.7%(3.8%)	4.6%(4.4%)	4.6%(4.4%)	4.5%(4.3%)	4.0%(4.0%)
PCE 물가	5.6%(5.4%)	3.1%(2.8%)	2.5%(2.3%)	2.1%(2.0%)	2.0%(2.0%)
핵심 PCE 물가	4.8%(4.5%)	3.5%(3.1%)	2.5%(2.3%)	2.1%(2.1%)	-
기준금리	4.4%(4.4%)	5.1%(4.6%)	4.1%(3.9%)	3.1%(2.9%)	2.5%(2.5%)

[자료] 연준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

□ (경제지) 월스트리트저널, 12개월 내 미국 경제 불황 가능성 63% 전망

- 월스트리트저널이 74명의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(10월) 결과,
 - 내년 1분기 GDP는 -0.22%(연율) 역성장, 연간 0.44% 성장에 그칠 전망
 -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3.25%로 7월 전망치(2.93%) 보다 높게 예상
 - 내년 실업률을 4.71%, PCE 물가지수 3.10% 상승 등 전망

<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전문가 '23년 경제 전망 (중간값) >

	1월 조사	4월 조사	6월 조사	7월 조사	10월 조사
기준금리	0.93%	2.01%	3.32%	3.28%	4.23%
실질 GDP	2.41%	2.18%	1.36%	1.14%	0.44%
CPI	2.49%	2.86%	3.26%	2.93%	3.25%
핵심 PCE 물가	2.40%	2.83%	-	2.93%	3.19%
실업률	3.45%	3.56%	4.19%	4.28%	4.71%
불황돌입 확률(12개월 내)	17.74%	28.29%	44.33%	48.62%	63.34%

[자료] Wall Street Journal

□ (업계) 짧고 완만한 리세션 예상. 빠르면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돌입

-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올해 GDP 성장률 1.9% 예상 ⇒ '23년에 0%로 정체 ⇒ '24년 1.7% 반등 전망
 - '23년 1분기 GDP 역성장을 시작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예측
 - * ('23.1분기) -0.6% ⇒ (2분기) -1.5% ⇒ (3분기) -0.4%
 - 이번 불황은 비교적 완만하고 짧을 것으로 전망, 3분기부터 경기 회복 예상

< 컨퍼런스보드 내년도 경제 전망 >

구분	2023년					2024년			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연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연간
실질 GDP	-0.6%	-1.5%	-0.4%	1.2%	0%	3.0%	2.5%	2.2%	2.3%	1.7%
실질 가처분소득	0.5%	0.2%	0.3%	0.6%	0.4%	1.0%	1.7%	1.8%	1.9%	0.0%
실질 소비지출	-0.5%	-1.5%	-0.4%	0.4%	0.10%	2.9%	2.4%	2%	1.8%	1.5%
실업률	3.7%	3.8%	4.2%	4.5%	4.1%	4.5%	4.4%	4.2%	4.1%	4.3%
PCE 물가	4.7%	3.6%	3.2%	2.8%	3.6%	2.5%	2.3%	2.1%	2.0%	2.2%
핵심 PCE 물가	4.0%	3.6%	3.1%	2.8%	3.4%	2.5%	2.3%	2.1%	2.0%	2.2%
기준금리	4.88%	4.88%	4.88%	4.88%	4.88%	4.63%	4.13%	3.63%	3.38%	4.63%

[자료] The Conference Board

- (美상의) 미국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경기 부양 없는 리세션에 대비 당부
 - 완만하고 짧은(mild and short) 리세션을 전망하면서도, 인플레이션 우려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침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
 - 내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, 연간 GDP 성장률 0.4% 예상
 - * '23년 (1분기) 0.1% ⇒ (2분기) -1.3% ⇒ (3분기) -1.3% ⇒ (4분기) -0.3%

□ (월가) 내년 '완만한 리세션'에 컨센서스 형성 중, 일부 '연착륙' 전망 제기

- (JP 모건)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0.5~1%로 추정하며, 내년 하반기 무렵에 '완만한'(mild) 수준의 리세션 돌입 예측
 - 임금 상승률 4~5%, 인플레이션 3~4%, 소비 지출 2% 증가 전망
 - 주택경기 하락 및 수출 감소(강달러 효과) 등이 경기 하방 요인
 -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완화에도 불구하고, 연준 목표 2%에는 상회 전망
 - * 핵심 CPI 추이(전망) : '22.9월 6.3% ⇒ '22.12월 5.7% ⇒ '23.9월 3.4%

○ (골드만삭스) 금융계 컨센서스와 달리 리세션 가능성을 낮게 예측

- 내년도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다음 5단계 전망 :
 - (1)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GDP 성장 관리(약 1% 수준)
 - (2) 노동시장 과열 해소(노동 수급 격차를 현재 5.9백만에서 2백만까지 축소)
 - (3) 임금 인상 속도 둔화(임금 인상률을 3.5%로 하향 조정)
 - (4) 인플레이션 완화(내년 말 핵심 PCE 물가 3% 수준까지)
 - (5)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(내년 3차례 0.25% 인상, 5~5.25% 수준)

< 골드만삭스 '23년 GDP 전망 >

	2022년*	2023년*				2022년 연간	2023년 연간
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	
골드만삭스 전망	0.9%	0.8%	1.0%	1.3%	1.3%	0.3%	1.1%
시장 컨센서스	0.6%	-0.1%	-0.1%	0.6%	0.1%	0.2%	0.1%

[자료] Goldman Sachs

* 주 : 전분기 대비 성장률(연율)

3. 시사점

- 내년 경제에 비관적 여론 고조 ⇒ 소비 위축으로 전이 위험 상존
 - 여론조사(12.3~7) 결과, 과반(52%)의 응답자가 내년 경제 악화 전망 중
 - 美 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7%로 경제 비관론 고조
 - 미국 11월 소매 판매 실적 부진 등 소비 위축의 전조 분석 제기
 - 11월 소매판매, 전월 대비 0.6% 하락하는 등 예상 밖 부진 기록
- 근래 최초로 정부 경기 부양책 없는 리세션 예상에 업계의 위기감 고조
 - 현재 高 인플레이션 속에 재정·통화 확대 정책 가동이 어려운 상황 ⇒ 만약 발생할 불황에 대비 개별 기업의 자구책 마련 시급
 - 만약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시, 기업은 원가 인상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게 되는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 지적
 - 그 외 고려할 불확실성 요인으로 △인플레이션의 고착성, △연준의 판단 착오, △노동력 부족 구조화, △급격한 소비 위축, △에너지 가격 변동 등 제기
- '23년 '무역 불황'(Trade Recession) 발발 가능성 고조
 - Oxford Economics는 최근(12.1) 글로벌 무역 전망 보고서에서, 내년도 전 세계 상품 교역이 0.2% 감소할 것으로 전망 (IMF, WTO 성장 전망 1~2.5%을 크게 하회)
 - 미국·유럽의 경기 위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 감소가 두드러질 분석
 - 내년 리세션에는 '81년, '92년, '01년과 같이 무역량 감소가 가파르지 않을 전망
 - * 과거 리세션 시 무역량 증감(전년 대비) : '09년(-12%), '75년(-7.3%), '20년(-5.8%), '82년(-3.3%), '58년(-2.8%), '81년(0.1%), '92년(0.2%), '01년(0.5%) 등

[자료] 연준, 경제분석국(BEA), 인구조사국, 월스트리트저널, 블룸버그, JP Morgan, Goldman Sachs, ISM, US Chamber of Commerce, Oxford Economics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